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1월)

일시	2020. 1. 16. 목. 오후 5시	장소	나주시청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요수, 김태진, 박미자, 이묘숙,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8명)	
	회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6명)	

■ 회의 내용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나주 난장곡간 오픈 기념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나주에서 하게 됐다. 13분 중 8분의 참석으로 과반수 성원이 됐으므로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금년 첫 회의다.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광주에서 떨어진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회의를 시작하겠다. 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 송일준 사장 : -나주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이름은 광주MBC이지만 광주MBC 커버리지 내에 여러 지자체가 포함돼 있다. 그중 한 곳인 나주에서 와서 시청자위원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바쁘신 중에 신년 첫 시청자위원회를 현장에 와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주시와 콜라보를 하고있는 현장에서 시청자위원회를 열고 시청자위원님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무쪼록 올해도 광주MBC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란다.
- 최영태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1월 1일 새해 벽두에 <신년 특별생방송 2020 시민, 공정을 말하다> 올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공정,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라는 주제로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송년특집 <오매 전라도>는 12월 31일 1년 결산하는 방송을 나주정미소 난장곡간에서 했다. <문화콘서트 난장 사운드페스티벌 '숨은 보석을 찾아라'>는 신인 등용문 코스인데 1월 4일 토요일 3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다. 아시안 탐 밴드 워크숍이 2월 3일부터 참가자 접수를 하고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본선을 한다. 그에 앞서서 7개국 담당피디 워크숍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라디오 특집 '2020 호남의 선택'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광주MBC 펭귄스튜디오 라디오 오픈스튜디오가 2월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아마 10일 무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FM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표준FM <놀라운 세시>가 방송하고 이 방송내용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나중에 TV도 동시 방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핑크피쉬> 팝업 레스토랑 하고 종합토론은 2월 중에 진행을 하고 2월 29일 토요일에 방송할 예정이다. 그리고 <황동현의 시선집중> 설

연휴 특별생방송을 추진 중인데 1월 24일은 두 군수 이야기, 1월 27일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관련해서 방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분 개편은 1월 26일 되는데 총선 전까지 한시적이다. <100분 토론>을 전진 배치해서 목요일 오후 11시 5분부터 방송을 하고, 대신 그 시간에 방송했던 <문화콘서트 난장>은 금요일 8시 30분으로 옮긴다. 그리고 본사 프로그램이 여러 변화가 있는데 일요일 저녁엔 <끼리끼리>, 월요일 저녁엔 <배철수의 잼> 기타 등등 방송할 예정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다.

○ 한신구 보도국장 : -4·19 총선 관련해서 광주·전남 유권자 여론조사를 1월 1일과 2일에 발표를 했다. 무등일보, 뉴시스와 공동조사 했고 광주, 목포, 여수MBC 5개 사가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향이 굉장히 컸다. 2차, 3차 여론조사가 다시 예정이 되어 있다. 후보자들이나 예비후보자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오늘 낮에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큰 의지로 저희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뉴스 이슈를 선도해야 하고 검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야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출범을 했고 그에 대한 과제도 보도를 했다. 지역민들은 야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치홍이나 김선빈의 FA 부분에 대한 보도를 1월에 했다. 기초생활수급 부부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의 실태도 조명하고 있다. 광주의 큰 사건 중 하나였던 민간공원특례사업 검찰 발표가 마무리 돼갔지만 9개월 정도의 수사 과정에서 본격 수사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데 검찰수사는 용두사미가 아니었나 싶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희가 5·18 40주년 연중기획 <내 인생의 오일팔>을 1월 1일부터 제작하고 있다. 첫 편은 '정태춘의 오일팔'이다. 긴 것은 3분 20초, 짧은 것은 1분 30초 정도로 해서 하루에 세 번 정도 나가고 있다. 2편은 심리학자인 정혜신 박사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 아마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제작이 완료가 되어 나가게 될 것 같다. 2월 주요 업무로는 4·15 총선에 맞춰 선거기획단을 다섯 개 국과 스마트미디어사업단을 합쳐서 17명 정도 구성한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민주당 경선 직전에 2차 여론조사를 하고 마지막 3차는 선거운동이 들어갔을 때, 대진표가 짜졌을 그때 3차 여론조사를 하겠다. 특집을 두 편 제작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오일팔>은 연중기획으로 24부작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 관련해서도 지금 기획취재를 준비중이고 보도국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신입기자 채용을 올해 안에 한 명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설 연휴 주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1월 주요 내용으로 올해 기존의 광주MBC 채널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6만4천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 시사교양 다큐 중심의 채널로 재편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리고 기존의 교양과 생활정보 채널 경우에는 <광주MBC 라이프>라는 채널을 하나 열었다. 그래서 이쪽에 교양정보 채널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돌 스튜디오>라고 하는, 미래를 보고 K-POP과 K-댄스를 다루는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올해부터 디지털오리지널 제작을, 즉 유튜브에서만 방송되는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해서 저희만의 독점적인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준비 중이다. 1월 중에 주목할 만한 콘텐츠로 디지털에서 아까 편성국과 보도국에서 보고드렸습디만 총선여론조사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론조사 콘텐츠만으로도 뉴스 채널에서 70만 회 이상 조회가 될 만큼 이슈였고, 역시나 야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안치홍이나 김선빈에 관련된 콘텐츠의 조회수가 20, 30만이 나올 정도다. 그리고 광주MBC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하다가 지상파방송에서 한동안 끊겼었는데 이것을 디지털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개월쯤 되었다. 국악전문채널 <얼씨구당> 같은 경우에 최근 송가인의 오빠와 강준섭 명창의 아들 이런 콘텐츠들이 시장으로 보면 큰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만 이상이 나올 정도로 리치마켓이 있다. 이걸 다른 채널들에서는 다루기 힘들어서 국악계에서는 이미 채널로는 인지도가 꽤 올라간 상태라 저희가 향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앞서 편성국에서 보고 드렸는데, 올해부터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테스트 중이고 <정오의 희망곡>, 표준FM <놀라운 세시>는 양림동 펍스튜디오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상반기의 기획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보도 그리고 전국 단위로, 계열사끼리도 총선 유튜브방송 관련된 기획을 준비 중이다. 저희 자체적으로 디지털에서 유통할 만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획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다. 아까 말씀 드렸던 K-POP 관련된 콘텐츠는 저희가 기존에는 댄스튜토리얼이라고 K-댄스를 가르쳐주는 콘텐츠인데 K-POP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의 성장기를 다루는 콘텐츠를 주에 하나씩 해서 저희가 1년 후에는 이걸 모은 휴먼다큐 형태의 지상파 콘텐츠로도 만들어보려고 준비 중이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경영 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MBC 새로운 캠페인 '공정,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캠페인 전개 홍보 행사와 방송이 있었는데 편성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1월 1일날 문빈정사 앞에서 우리 임직원도 참석을 해서 신년인사를 하고 시민 대상으로 기념품 배부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9년에 수십억 투자를 해서 1월 14일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양광발전 준공식을 했는데, 3메가급으로 수익이 7, 8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최영태 위원장 : -지금까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할 게 있나? 없으시다면 시청자위원님들의 의견 들도록 하겠다.
- 박미자 위원 : -저는 얼마 전 월요일에 있었던 뉴스 첫 보도에 2020 총선 시민모임 출범식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시기적절하게 첫 메인에 이렇게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 그리고 그 뉴스의 내용이 시민모임의 출범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시민모임이 앞으로 전개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심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순수한 시민모임이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선 선거운동으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출범식 과정, 그리고 향후 진행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 또는 좋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특별한 단체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순수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게 결코 쉽지않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뉴스에서 다뤄주시고 이런 시민모임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관심 갖고 취재해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1월 1일날 <뉴스데스크> 시간에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도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언론사와 비교할 때 광주

MBC는 무등일보, 뉴시스와 함께 이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보도도 훨씬 양이 많고, 독자들의 신뢰와 관심도도 많아서 파급력이 매우 컸지 않나 생각이 된다. 그리고 이걸 다시 1월 5일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계속 살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뉴스와 <김낙곤의 시사본색>, <황동현의 시선집중> 등이 유기적으로 해준다면 앞으로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으로 1월 14일날 <뉴스데스크> 시간에 아주 짝막하게 전남대가 금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어제는 조선대학교에서도 등록금 동결했다. 이 지역이 전부 동결을 하는데 이게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대학이 학부형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대책 없는 동결만 된다. 광주 전남지역 대학의 재정난이 많이 심각하다.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주와 전남은 그런 게 없고 정부가 등록금 동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려움을 아주 가중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등록금 동결 14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심층으로 다뤄주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 최선희 부위원장 : -<김낙곤의 시사본색>이 신년을 맞아 새로운 모드로 변환되어서 계속 전진화 된 것 같다. 특별히 한 인물을 중심으로 다뤘던 것이 지난주, 지 지난주 일요일 아침시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박양우 장관이 나온 프로였다. 우리가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모처럼 문화 콘텐츠를 진중하게 다루는 기회여서 아주 흥미로웠다. 우리가 “문화가 밥이냐” 했던 시대에서 “문화가 밥이다”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아주 중요한 시기적절한 인물 섭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용은 구구절절 아주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안고 가는 여러 문제,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구성하는 5대 문화권의 구성에 관한 발전방안, 그리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을 선임하는 문제랄지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이지만 우리나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남북교류 부분에 관련한 것들도 있었고 60분짜리를 가지고 다루기엔 상당히 버거운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사실은 한두 번 더 요청해도 될 터인데 전에는 우리가 <시사본색> 하고 또 하나 <인더시사> 두 가지 꼭지를 나눠서 편성하다가 한 인물을 중심으로 1시간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그래픽 처리하는 것 가지고는 지루함이 굉장히 가중되었다. 내용은 굉장히 진중하고 폭이 넓은 것에 반해서 시청자의 시각으로 보면 전후 사실은 문체부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직접 관련된 부분들도 꽤 많아서 눈여겨보고 잘 세심히 들었는데 일반 시청자가 볼 때는 와닿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문광부에 요청해서 자료화면을 입수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훨씬 더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우리 광주MBC 자체 자구적으로 구성하기에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내용이 방대하니까 다루기 곤란할 텐데 장관 정도가 뜨면 문체부에서 요청해도 될 내용이기도 할 것 같다. 섭외 당시에 내용의 편집을 알차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많은 답변도 줬고 방안제시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도 금주 일요일에 나왔었다. 이렇게 아마 총선에 다가가면서 거물급도 여러 면에서 각본을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길어질 때 특별히 인물 한 사람 중심으로 잘못하면 좌담회가 돼버린다. 60분 채널을 못 참고 돌려버리는 시청자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편성하면 좋겠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김낙곤 사회자 혼자서 이것을 구성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텐데 간판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에서 지원사격을 해 주셔서 자료를 좀 더 풍요롭게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영태 위원장 : -저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뷰한 걸 꼭 봤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현황이라든가 진척도, 향후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그분이 이쪽 출신이고 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 때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것은 정부 투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부 투자는 계획 대비 44.8%다. 그런데 광주시는 16.3%에 불과하고 민자 유치는 4.6%에 불과하다. 민자 유치는 예상했던 것인데 광주시 예산이 16.3%의 투자에 그쳤다. 이것은 광주가 말로만 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 실제로는 전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 옛그제는 문화관광체육실장의 인사가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실장도 다른 보직 바꾸듯이 바꾼다. 그러니까 문화중심도시사업이 16년째 되는데 광주시의 문화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도 못 하고 박 장관의 경우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광주에서 가만히 있어 자기가 제안한다는 식으로 했다. 그리고 또 광주시민의 문화지수가 16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좋아졌느냐. 예를 들어 공연 관람 같은 부분 말이다. 아니라고 한다. 저는 이왕에 박양우 장관 인터뷰가 있었으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는 어떤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장을 초청하든지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 김요수 위원 : -저는 이번에 12월 26일 <오매 전라도>를 봤는데 처음 멘트에 세간에 화제가 됐던 닭강정 배달에 대한 멘트가 있었다. 이 사건은 그날 이후로 반전과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었다. 너무 선불리 평론식 멘트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언론사가 디지털에 밀려서 뒷전에 서 있지만 그 언론사에 72시간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사실보도는 그대로 하지만 논설은 72시간 뒤에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이성적 분석,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뒤에 올바른 사회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이다. 언론사에서 빠르게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보도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생각을 한 뒤에 논리를 잡아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 광주MBC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중딩영화제를 소개했는데 저는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가슴이 뵈다.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일이 늘 즐겁다. 상을 받는 중학생들이 질문과 답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하도록 질문하는 게 좋았고 수상작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꼭 해주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수상작 하이라이트나 중딩영화제 이모저모 이런 걸 해서 별도로 MBC 유튜브 같은 데에 정착이 되면 좋겠다. 젊은 학생들을 더 복돋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매 전라도>에서 하는 꼭지 중에서 '오매 밥상'이라는 대목이 있다. 우리 일상 이야기도 듣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굉장히 좋은 꼭지라고 생각한다. 그 대목에서 항상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음식을 가지고 갈 때 일회용 용기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고쳐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일회용 용기가 아니

라 그릇을 준비해서 해도 괜찮겠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1월 9일 봤는데, 예전에 어쿠스틱 콜라보로 활동을 한 디에이드라는 가수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다. 음악을 아는 젊은이들의 핫 아이코너로 떠오르는 새 소년이라는 그룹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 굉장히 섭외하기 힘들다. 그 영상에서 관객들이 둠칫둠칫 하면서 같이 분위기를 타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아쉬웠던 것은 그 프로그램에서 항상 오자회담라는 것을 한다. 출연자와 사회자가 다섯 자로 묻고 다섯 자로 대답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코믹하고 유익하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장>이 광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전국의 음악 젊은이들에게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어 좋았다.

- 박미자 위원 : -저도 방금 김요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나주정미소 <문화콘서트 난장> 프로그램을 보면서 섭외력에 대해 저도 놀랐다. 이게 방송국 자체적으로 섭외를 하시는 건지, 섭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했는데 피디님이 직접 섭외를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는 엔플라잉 팀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옆에 있던 대학생 딸이 보고 저 팀이 나왔냐고 좋아하면서 같이 보았다. 세대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한 것 같다. 제가 꾸준히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중간에 관객들이 색색가지 별을 들고 있었는데 항상 그 별이 나오는 건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관객들이 좀 더 거기 몰입을 해서 즐거운 노래가 나오면 같이 춤도 추고 할 텐데 아직은 사람들이 본인의 흥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런지 같이 할 수 있는 관객들이 몰입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앞의 가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같이 박수 치고 웃으면서 함께 하지만 관객들도 같이 덩달아서 했으면 한다. 젊은층이 환호하고 젊은층이 함께 서서 가까이에서 선호하고 우러러보는 가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섭외력이 좋으시니 좀 더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 아마 이 <문화콘서트 난장>이 관객들로 넘쳐날 것 같다. 생생한 현장감 있는 방송, 여기저기 화면을 바꿔가면서 비춰주는 모습이 <문화콘서트 난장>에 쏟는 정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1:47
- 김요수 위원 : -저는 아침에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를 자주 듣는다. 12월 후반기부터 1월 전반기를 보면 라디오 전화 인터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화 품질이 너무 안좋아서 잘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 진행자가 정리를 잘해주고 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항상 전화 인터뷰를 할 때는 미리 점검을 하고 하면 좋겠다.
- 조숙경 위원 : -저는 <황동현의 시선집중>을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로 듣는다. 이번에 <2020 총선특집> 3부작 시리즈가 기획도 신선했고, 출연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좋았다. 특히 최영태 위원장님과 구길용 기자님이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로 직접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출연한 정치인들이 설명하고 대답하는 형식이 매우 좋았다.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를 3일 전에 점심때 듣게 됐다. 5·18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리포터가 리포팅을 해 와서 그걸 가지고 진행자와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시선집중>을 듣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고유한 유니크적인 면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태진 위원 : -요즘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의 상당수 시간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주MBC에 관련된 SNS와 각종 채널을 살

펴보게 되는데 오랜만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 최근 몇 달간 올라온 콘텐츠가 대부분 뉴스로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가 대세 채널이기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계획들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페이스북에 맞는 콘텐츠를 함께 업로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올라간 영상의 음향이 각자 달랐다. 이왕이면 그런 면까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맞춰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2019년도에 처리한 시청자 민원처리 결과가 22건 올라와 있었다.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다. 물론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한다는 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받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홈페이지 말고 다른 채널에도 공유가 되면 “광주MBC가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며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소통보다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느낌으로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면, 수 년 전에 세스코라는 기업에서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한참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 시민들이 어떤 질문을 올려도, 본인 회사랑 상관없는 질문들을 올려도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줌으로써 그 회사의 신뢰도가 엄청 상승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광주MBC에서도 단순히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시민들과 진짜 소통한다는 느낌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그렇게 성장시켜 진행하다 보면 회사 신뢰도 역시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다.

- 박미자 위원 : -2020년 새해 MBC 공정캠페인에 대한 기대는 누구보다 크다. 시청자들에게 자칫 공정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다가올까 하는 우려가 있다. 대신 공정캠페인 속에 담는 콘텐츠나 내용을 좀 더 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 말고 아 이런 것도 공정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이런 것도 평등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이뤄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콩나루 시루에 물 주듯이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캠페인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정캠페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동안 우리 시민들, 특히 광주시민들이 광주MBC를 통해서 공정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하다못해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미혼모든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공정, 그것을 광주MBC가 추구한다는 의미로 캠페인을 펼쳤으면 한다. 일년 동안 공정캠페인을 열심히 응원하겠다.
- 조숙경 위원 : -저도 광주MBC 연중캠페인 키워드 공정이 매우 시의적절하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든다. 박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MBC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가 1년 내내 지켜봐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기후변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이슈도 프로그램 전반에 보이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아까 ‘오매 밥상’에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키워드로 광주MBC는 공정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두 분이 공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 이묘숙 위원 : -공교롭게 저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겹치는 게 있다. 저는 공정에 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실천에 대해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마침 2020년도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다 알려졌겠지만 경선이 통과되면 80%를 저희가 거의 확정시 생각하는 게 지역적 정서다. 그런데 경선의 과정에 있어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지만 각각 예비 후보들의 노출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과연 광주MBC는 얼마나 공정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섭외를 할 것인가 부분이 있다. 특히 이번에 이게 같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2020 총선에 관한 3부작 특집 <호남의 선택>에 있어서 물론 저희 최 교수님이나 구 기자님 같은 경우 특별히 중심을 잡고 시민의 다양한 바람이나 지역의 여건을 잘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회차에 왔던 신진 예비후보와 3회 차에 나왔던 현재 국회의원들은 과연 왜 그들이 선택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하는 게 있다. 섭외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섭외의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요새 현장을 뛰고 있는 의원의 목소리가 들렸다거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뛰었던 의원이 출연했다거나 했을 때는 어느 시민이라도 공정하게 밸런스에 대해 충분히 인지도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약간 서운했다 싶다. 신진이라 했던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너무 언어적인 표현이 현실적인 표현이라 지역이 넓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비록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표피적인 이야기를 바로 했다. 예를 들어 “인지도만이 당선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 물론 인지도 같은 그런 부분이 기본이지만은 그런 것도 사전에 섭외과정에서 준비가 되거나 필터링이 됐더라면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알고 있고 당연히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미묘하게 선거에 대해 회의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공정한 사회를 굳이 1년 동안 캠페인으로 꾸미신다면 그 공정은 방송에서 섭외와 방송의 포맷을 잡을 때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 바로 우리부터 실천하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동하는 장소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방송에 노출되는 순간순간, <오매 전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도, 특히 이번에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아마 출연자들의 앞에 놓여있는 종이부터 다양한 소재가 있을 것이다.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이 몸에 체득화가 되어있는 방송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캠페인은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회속의 저변확대라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방송사에서, 방송 속에서 녹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영태 위원장 : -위원님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다. 다음으로 간부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김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닭강정 배달부분 처음에 학폭 피해자에서 반전을 거듭해 가지고 대출사기단을 했는데 방송해놓고 제작진, 저 모두가 마찬가지로 아차 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속성의 과정을 거쳐서 공영방송 MBC 위상에 맞도록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딩영화제 관련해서는 중학생 출연자를 출연시켜서 방송했는데, 중학생 출연자를 콘트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말도 잘 듣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 리허설을 몇 번이나 했다. 말씀하신 대로 하이라이트나 중딩영화제 부분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매 방송에서 아까 일회용 용기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은 더 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다. <문화콘서트 난장>의 오자회담은 질문에 다섯 자로 재치 있게 답변하는 코너인데 좀 더 보완해서 시청자들이 출연팀의 음악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코너로 만들겠다. 그리고 엔플라잉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싸게 섭외한 가수고 전구는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사용하니 이해 바란다. 김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디오 부분의 전화 인터뷰 품질 외에도 제작진들은 중앙방송과 비교해서 선명도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어 점검을 하고 있다. 조속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5·18 아이템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게 소재 선택도 하고 그렇게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박미자, 조속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캠페인 관련해서, 저희가 이 캠페인을 론칭할 때 3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대정신에 맞게 만든 거다. 캠페인이 SB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나가고 있다. 지금 총선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이 프로그램을 백업하는 프로그램들, 토론, 관련 특별생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 보고 드리겠다. 그리고 <황동현의 시선집중> ‘호남의 선택, 이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총선 때까지 계속된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 한신구 보도국장 : -박미자 위원님께서 총선시민연대 출범 관련해서 좋은 후보를 알리는 데에 시민연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다. 저희 언론만으로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이고 불가항력이다. 시민단체와 여기 계신 분들,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다.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 의도를 전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활동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단체에 연계가 많이 됐는데 이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시들해진 것 같다. 총선시민연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6개월쯤에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준인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그날도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시민연대와 연결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최영대 위원장님께서 총선여론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주셔서 고맙다. 2, 3차 여론조사를 마찬가지로 준비 중이고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접전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1대1 구도를 붙여볼 생각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 때는 원 사이드한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생략을 하려고 한다. 워낙 차이가 나는 곳에서는 관심이 시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대1 구도까지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이다. 시사프로그램과 연계는 당연히 저희 <김낙곤의 시사분석>하고 <황동현의 시선집중>을 연결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도록 하겠다. 등록금 동결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도는 맞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거나 삭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구도가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학들의 질적인 하락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도하도록

하겠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같은 경우 박양우 문체부장관 섭외가 힘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좋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래서 관련 자료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또 형식적인 틀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나 광주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시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좀 더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묘숙 위원님이 출연이나 뉴스의 섭외단계부터 공정성을 기해달라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렸지만 후보들이 많고 뉴스 시간은 짧기 때문에 보도국에서도 고심이 많다. 그래서 출판기념회나 출마선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해준다, 나머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지지선언이 문제이다. 지지선언이 과연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뒤에서 기계적으로 몇 사람에게 의해서 지지선언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지지선언은 보도하지 않기로 정해져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 토요일날 한 후보쪽에서 항의 전화가 왔다.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왜 다른 서네킨데는 나갔으면서 나는 왜 안 나가느냐라는 항의 전화가 왔다. 방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 그랬더니 이해하고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해를 하셨다. 앞으로도 그런 원칙은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김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했던 중딩영화제 유튜브 저작권은 요즘은 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출판한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저작권 동의를 다 받는다. 그래서 광주MBC에 이것을 올려도 되는지 저작권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은 답변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김요수 위원님과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콘서트 난장> 엔플라잉이나 디에이드 같은 경우 재밌는 것이, 엔플라잉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기존 <난장>보다 많이 나오는 핫한 아이돌이기도 하다.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국내 조회수는 30% 정도 밖에 안 되고 70%는 동남아나 미국, 유럽에서 나온다. 아까 말씀하신 디에이드나 새소년 이런 친구들도 뜨고 있는데 30, 40% 이상은 실제로 해외에서 조회수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스북 콘텐츠는, 페이스북은 광주MBC와 광주탐구생활이 있다. 광주MBC는 뉴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주탐구생활은 뉴스와 교양정보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동영상 평균 시청이 30초가 안 된다. 우리나라 전체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모든 매체의 고민인데 페이스북은 3분 이상, 1분 이상 그리고 3천 회 이상 보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여서 저희가 페이스북은 전략적으로 광주MBC 콘텐츠 홍보 채널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페이스북 자체는 실제로 정책상 대부분이 홍보 채널로 국내에서는 이미 돌아섰다. 실제로 광주MBC 페이스북 유저들은 30대 미만이 60% 이상이다. 위원님들도 보면 광주MBC 페이스북을 40대~60대가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페이스북은 10대, 20대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중심 수요가 많고 젊은이가 선호할 만한 콘텐츠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6만 명 정도의 좋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향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이번 회의 때도 시청자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일회용 소모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음 시청자 위원회 때는 유리컵으로 교체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오매 전라도> ‘오매 밥상’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용기를 다양하게 주문해서 <오매 전라도>의 로고를 박아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매번 음식에 따라 그릇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준비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방송에 <오매 전라도>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우리 전용 그릇으로 방송에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공정에 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공정한 자세,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도, 편성제작 할 것 없이 정기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현상도 진단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된 다양한 보도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일년은 공정을 가지고 하겠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오늘 가서 보시겠습니까만 사실은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인데, 그동안 무료로 했던 <난장> 공연을 지금은 유료로 전환했다. 그래서 1만3천 원에 티켓을 판매한다. 팔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3천 원 정도를 제외하고 만원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한다. 지난 번 1월 4일에 진행했던 <난장 페스티벌>은 그때 공연 시간도 길고 유명한 밴드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2만1천 원에 티켓을 판매했더니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고 그 중에 1만5천 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줬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그걸 쓰려고 나주를 탐방한다. 우리가 숫자로는 몇백 명에 불과하지만 나주지역을 젊은이들 사이에 알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자체의 몫이겠지만 우리 공영방송으로 광주MBC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최영태 교수님께서 하는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사실 그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편성제작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아니 이 좋은 걸 왜 찍어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서, 20회 정도 한 시점에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서 찍고 이야기를 해서 40회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토털로 40회 패키지로 김대중 대통령에 관련된 정보 콘텐츠로 우리가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못찍어서 라디오 음성으로만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 찾아서 음성에 맞는 자료들을 편집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화 해서 40회 패키지 콘텐츠로 만들 생각이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요새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할 것 없이 이게 다 자산이다. 최영태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콘텐츠를 주셔서 저희가 120%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다.
- 최영태 위원장 : -오늘 새해 첫 번째 회의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고, MBC 간부님들께서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회의가 아주 산뜻하게 진행되었다. 회의 후에 좋은 프로그램까지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끝.